

제21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사



신한국 창조와 선진환경정책 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산성 환경처 장관님! 그리고 김수학 회장님, 또한 이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스물 한번째로 맞이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국가 환경선언을 한지 한 뫼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전인 1972년 오늘,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113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인간환경의 보전과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가 “단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자”는 「UN 인간 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이 날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복지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며, 전 세계적인 간절한 염원인 동시에 인류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일년전 오늘, 남미의 리우에서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UN 환경 개발 회의가 개최되어 「리우선언」과 「의제 21」이 채택되는 등 21세기 지구 환경보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동회의 결과는 선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 입장으로 볼 때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공업국으로서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는바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지구 환경보전을 표방하면서 실제 협상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실로서 우리는 국제적인 환경보전 움직임의 대세를 수용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는바입니다.

황산성 장관님!

신한국 창조의 길목으로 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삶의 척도를 가름하는 환경 정책의 책임자로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최대 목표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더욱 강력한 환경정책 수행으로 훼손된 국토

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환경보전은 정부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정부 그리고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생산, 분배, 소비 및 쓰레기 처리등이 조화롭게 이루어 질 때 우리 환경은 더이상 파괴되지 않고 나아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보전을 기업 윤리의 하나로 확립하고 오염 방지를 위한 과감한 시설 투자와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환경개선은 물론 무역 장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며,

시민은 시민대로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자라는 환경의식을 가지고 물자를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고 하는 절약 정신을 키울때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은 반드시 달성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보호를 위한 많은 단체가 탄생되었고 활동 또한 활발하여 국민 환경의식 제고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 일각에서는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마다 각기 자신의 목소리만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도 있는바,

이제 우리는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정책 결정에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서로 이해하고 합심하여 구심점을 이룰때 진정한 민간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자리가 선진 환경의 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선조누대로 부터 물려받은 국토를 자손 만대에 금수강산으로 물려 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제21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을 협회가 주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기여하신 공로로 오늘 수상하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6월 5일

(사)환경보전협회 회장 정수창